

한국과 일본의 감각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김경미*, 지식연**, 강은아**, 김미선**, 남궁영***, 이지영****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Sensory power 연구소
***국립서울병원 작업치료실
****서울재활병원 작업치료실

Abstract

The Change of Sensory Integration Educational Program in Korea and Japan

Kim, Kyung-Mi*, PhD., O.T., Ji Seok-Yeon**, B.H.Sc., O.T., Kang Eun-A**, B.H.Sc., O.T., Kim Mi-Sun**, MA., O.T., Namgung Young***, MS., O.T., Lee Ji-Young****, B.H.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Sensory Pow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eoul National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eoul Rehabilitation Hospital

Six members of Korean Association of Sensory Integration(KASI) participated the treatment course named C-course of Japanes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Sensory Integrative Dysfunction(JASSID) during Jul. 27~Aug. 3, 2005. After the course, we investigated the education program of Japan and Korea and how it had been changed and developed. Through investigating JASSID with history for 23 years and KASI with history for 8 years, we find out that the common contents of sensory integration exist and the diversities of their own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also exist. In Korea, KASI would develop our own educational program and research based on having the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other former country developed education of sensory integr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학회의 모체인 감각통합치료연구회는 소수의 회원으로 운영되며 회원이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한 후 공유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로 발족하고 회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함께 공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의 강사가 다수의 회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소수의 강사가 다수의 회원 및 비회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회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기 어려우며 또한 배경이 다른 다수의 회원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학회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와 주강사는 2005년 7월 27일부터 8월3일까지 일본감각통합학회의 치료과정인 C코스를 참관하였다. 일본의 교육과정에 참여 한 후 학회의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감각통합학회의 교육과정과 본 학회의 교육과정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일본 감각통합학회

가. 일본감각통합학회 역사

일본의 감각통합 역사는 약 23년 정도가 된다. 1980년대 초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와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작업치료를 공부하고 감각통합의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고 佐

藤 剛(사토 쓰요시 - 전 삿포로 의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와 土田 幸子(쓰치다 레이코 - 전 나가사키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현 히로시마현립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일본에서 감각통합치료와 교육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작업치료협회에 속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1년 가을 뇌해부학, 생리학 등을 시작으로 강습회를 시작하였고, 1982년 작업치료협회에서 독립하여 일본감각통합장애연구회를 발족하였다(회장 사토 쓰요시, 부회장 쓰치다 레이코). 약 20년간 사토 쓰요시가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2년부터 쓰치다 레이코가 회장을 역임해 2004년 11월 명칭을 일본감각통합학회로 변경하였다(일본감각통합장애연구회 회보, 2001).

일본감각통합학회는 Jean Ayres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오면서도, 일본 내에서의 연구를 활발히 하여 Miller Assessment for Preschooler(MAP)를 일본에서 표준화하여 JMAP으로 개발하였고, 감각력 질문지를 개발, 개정하여 Japanese Sensory Inventory-2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Sensory Integration Praxis Test를 대신하여 일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감각통합평가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나. 일본감각통합학회의 교육내용

초기 교육과정은 코스 A, 코스 B, 코스 B', 코스 C로 운영되었다.

코스 A는 4일간 진행되며 감각통합개론, 해부학, 감각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코스 B는 검사와 평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코스 B'에서 검증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4일간의 사례 실습과 보고 및 그 결과를 검증하는

코스 C과정을 거쳤고, 코스 C를 마치면 '인정 치료사'로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다가 약 10년 전부터 많은 인원과 다양한 경력의 치료사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환되었다. 이 교육 시스템은 10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바뀌었고 수정된 내용들이다. 현재 일본감각통합학회의 교육은 회원대상과 비회원/회원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회원/회원대상으로는 입문강습회가 있으며, 회원대상으로는 인정강습회와 Advance 강습회가 있다.

입문강습회는 감각통합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의 일상생활과 보육활동,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 중 감각통합적인 접근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입문강습회에는 기초과정과 체험과정, 실천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초과정은 감각통합장애와 아동 행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감각통합의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험과정은 감각통합을 일상이나 치료,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로 실습하고 이를 통해 놀이를 분석하는 연습과 놀이를 계

획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과정은 실제 현장에서 감각통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정강습회는 감각통합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평가방법, 치료적 개입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다. 인정강습회 참가를 위해서는 입문강습회가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권유 과정이며, 입문강습회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임상경험과 자신의 배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검증 받아야 한다. 인정강습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본감각통합학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일본감각통합학회의 인정강습회를 수강하기 위한 대상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자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운영진(faculty)의 지침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회원은 연회비 6만원 정도를 내야하고, 이를 통해 회보와 학회지를 받아볼 수 있어서 학회의 강습회나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다.

인정강습회는 현재 A코스, B코스, C코스, Advance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 A코스에는 약 50명, B코스에는 약 25명, C 코스에는 약 8명 정도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A코스는 인간

표 1. 일본감각통합학회의 교육과정

교육종류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주내용
입문 강습회	기초과정	회원/비회원	감각통합장애와 아동의 이해
	체험과정		감각통합도구 체험
	실천과정		아동행동관찰, 놀이계획 작성 등
인정 강습회	A코스	회원 (임상경력 3년 이상)	관련된 신경학, 감각통합 평가법
	B코스	회원(A코스 이수자)	평가에 대한 해석
	C코스	회원(B코스 이수자)	실제 치료
Advance 강습회		회원(C코스 이수자)	

의 발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내용과 감각통합치료에 적용되는 검사와 관찰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B코스는 A코스에서 배운 검사와 관찰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방법으로는 수강자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집단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C코스는 실제로 아동을 평가하고, 치료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토론과 감독의 과정을 거친다. A코스의 경우, 교육 중 자신이 속한 담당 조장에게 1년 이내에 실제로 검사를 실시한 후 직접 검증 받아야 한다. B코스의 경우, 현장에서 본인이 치료하는 아동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C코스는 코스 중에 치료한 아동의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치료적용의 해석과 분석, 가정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검증 받도록 되어 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이수를 하거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C코스까지 모두 검증과정을 거친 사람은 인정 강습회 수료자로 학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Advance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내용으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외에, 강사와 instructor를 포함한 운영진(faculty)을 위한 교육이 연간 1회, 학술대회가 연간 1회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상의 과정으로 일본감각통합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진을 위한 교육은 운영진(faculty)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역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는 1996년 감각통합치료에 관심을 가진 작업치료사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소모임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년 뒤인 1997년에 감각통합치료연구회(The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로 발족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해 주제를 정하여 공개적인 세미나와 자체세미나를 실시하였다(김경미, 2003).

2003년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로 변경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회로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회원과 비회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회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감각통합치료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회 발족 이후 회장은 김경미(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역임하고 있다.

나.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교육내용과 과정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의 교육과정은 2005년 현재 공개교육, 준회원교육, 정회원교육의 세 가지 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공개교육에서는 감각통합소개교육, 부모교육, 타 영역 전문가 교육이 포함된다. 감각통합소개교육은 감각통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장애 및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학회를 이해하고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감각통합기능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감각통합기능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생활에서의 관리 전략을 소개한다.

준회원교육은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이 있다. 기초과정은 감각통합의 기초가 되는 신경해부학을 이해하고 재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과정은 감각통합기능장애 중 기본이 되는 감각 조절장애와 실행장애의 개념과 평가 및 치료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준회원과정을 이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각통합과 감각통합장애 및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최소의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회원자격시험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

표 2.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의 교육과정

교육종류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주내용
공개교육	소개교육	비회원(관심있는 자)	감각통합장애의 이해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이해
	부모교육	아동의 부모	감각통합이란? 체험 및 실생활에서의 관리 전략
	전문가교육	타영역 전문가	감각통합장애의 이해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이해
준회원교육	기초과정		신경해부학
	기본과정	회원(소개교육 이수)	감각조절장애와 실행장애의 개념과 평가 및 치료과정의 개괄적 이해
	심화과정	정회원	회원이 관심 있는 특정주제
정회원교육	평가과정	정회원(임상경력2년)	감각조절장애와 실행장애의 평가
	치료과정	정회원 (평가과정이수, 아동임상경력2년, 평가에 관한 과제 제출 후 통과)	감각통합기능장애 아동 평가와 치료
	수퍼바이저 양성과정	정회원 (현재 감각통합치료를 실시, 치료과정이수)	치료사례보고, 강사활동

를 통해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된다.

정회원교육은 심화과정, 평가과정, 치료과정, 수퍼바이저 양성과정이 있다. 심화과정은 발달, 감각계 등의 특정 주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평가과정은 정회원 중 임상경험이 2년 이상 된 회원에게 사례와 실습을 통해 감각통합장애의 평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과정에서는 평가과정을 이수하고 아동에 대한 임상경험이 2년 이상이며 지정된 과제를 제출하여 검증된 정회원에게 집중적인 치료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치료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퍼바이저 양성과정은 감각통합치료를 하면서 치료과정을 이수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치료를 객관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 수퍼바이저와 강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술대회가 있다.

III. 결론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은 회원들과 사회 환경의 요구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보고는 한국과 일본의 감각통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변화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감각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국내 교육프로그램

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유용한 하나의 나침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두 학회의 교육과정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볼 때, 감각통합교육이라는 공통된 목적과 대상이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이 미국에서의 감각통합교육을 자국에서 정리하고 체계화 한 것처럼, 본 학회도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교류와 더불어 국내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국에서 감각통합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미. 감각통합치료의 역사적 고찰.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2003;1:1, 73-79

佐藤 剛, 永井洋一, 浜田昌義. 感覺統合Q&A. 協同醫書出版社. 2001.

佐藤 剛, 20年の歴史の重みを感じて. 日本感覺統合障害研究會報. 2001.

<http://www.kasiorg.org>

<http://si-japan.net>